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예정대로라면 제32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8일 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것이다. 일본은 1964년 제18회 올림픽 경기 개최 경험을 살려 올림픽 효과를 최대한화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이 대회를 통해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며, 잔뜩 위축된 자국 젊은이들의 기를 살리고, 아시아 최고 강대국 지위 복귀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될 듯하다.

일본정부는 이번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며 과거 군국주의 향수에 빠

2020 제32회 도쿄 올림픽 경기 물 건너간 듯

져 오만함으로 자국의 이익에만 몰두하며 올림픽 정신을 외면했다. 화생방 올림픽이라는 비난에도 귀를 막아왔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로 선수와 관광객들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철저한 정보 통제와 모르쇠로 일관했고, 전범국 상징인 욱일기의 공공연한 사용으로 피해 당사국들의 항의 무시, 독도와 쿠릴열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하여 정치적 문제 야기, 요트 경기와 철인 3종 경기의 수영경기가 열리게 될 동경만의 수질 오염과 폭염에 대한 개선 요구 무관심, 심각한 방사능 유출 지역인 후쿠시마에 성화 봉송과 소프트볼 등의 경기 배치 강행, 선수들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후쿠시마산 농, 수산물을 올림픽 선수촌 제공 공식화 등이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를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와 선수들이 경기 보이콧을 강력하게 예고했으나 무관심으

로 일관해오다 이번에 결정적인 북병을 맞게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 팬데믹(대유행)이 선언되는 심각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자체가 무산될 처지를 맞았다. 개최국 일본은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스포츠 강국들은 무관중 경기보단 대회를 잠정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번 올림픽 대회는 불가능하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연기했을 때 또 다른 세계적 메가 스포츠 이벤트 운영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경기대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미 무경기 대회를 경험했었다. 1940년 도쿄는 제12회 대회 개최도시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경기 대회로 지났고 이번엔 전쟁이 아닌 전염병으로 인해 두 번째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IOC 규정에는 “개최도시와 국가는 올림픽 참가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기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개최권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했기에 일본 스스로 개최 포기를 먼저 선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며 실패를 각오하고 대회를 강행함도 있을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IOC 역시 일본으로 하여금 명분있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 팬데믹을 이유로 무경기 대회를 선언하고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질 일본 정부와 IOC 그리고 지금껏 최선을 다해 준비해온 각국 대표 선수들 입장이 안타깝다.

사설

감염병과의 전쟁,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

제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4일 네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더 이상 감염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 4명 모두 대구를 방문한 후 제주에 왔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니다. 제주는 사실상 코로나19 청정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제주사회가 휘청거리고 있어 큰 일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는 2월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1월 21~25일 제주를 여행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 여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17명을 확인,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지난달 18일 인천지대구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대구·경

북에서 속출했습니다. 청정지역이었던 제주 역시 코로나19에 뚫렸습니다. 같은달 20일 휴가차 대구를 다녀온 군인(22)이 제주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4명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제주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국내 신규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유럽을 비롯해 미국 등 전세계로 들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관 광도시인 제주는 감염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제주도는 한시도 방역 관리에 소홀해선 안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바이러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열린마당

착한가격업소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한 경 훈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우리 주변에는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게업소, 모범업소, 아름다운맛집, 향토음식점 등 다양한 종류의 업소가 지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정당한 가격 운영, 기본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정부가 선정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2019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5762개소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5140개소로 89.2%를 차지하고, 이 중 한식이 4399개소로 가장 많다. 올해 3월 현재 제주도는 143개소(제주시 104개소, 서귀포시 39개소)가 지정돼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금리혜

택,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 지원, 업소 운영 컨설팅 및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매월 50t씩 상수도 사용료 감면뿐 아니라 방역, 전기 안전검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도 참여 업소에 대해 반기별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가격, 위생정결, 서비스면에서 감동과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는 매달 외식비 지출 경비를 조금이나마 절약함으로써 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착한가격업소도 매출 증대를 기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기 위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솔선해 피해상이 아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 내 주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한 번 이용해 보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코로나19 확산차단 점검·홍보 총력

비상임이사 2명 모집도 진행

○…제주에너지공사가 올 상반기 일반행정과 신재생에너지개발분야 2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결정.

이번 채용은 필기, 서류, 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응시희망자는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통합 채용사이트(<http://jeju.incruit.com>)를 통해 접수 가능.

이와 함께 제주에너지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4월 3일까지 비상임이사 2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윤리관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후보자를 제주지사에게 복수 추천할 예정. 오은지기자

일부업소 티케팅업 등 여전

○…제주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업소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5월 말까지 위생점검 및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홍보를 실시할 방침.

이는 일부 다방업소에서 티켓영업행위 또는 도박행위를 묵인

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식품위생법 준수 및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개인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종교·유형시설 긴급 점검

○…서귀포시가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과 실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

시는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 실천을 위해 22일부터 4월 3일까지 읍면동 합동 전담팀을 구성해 종교·실내체육·유형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

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어기면 행정명령을 발동, 집회·집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월급 줄 돈이 없다”… 일자리에 총력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지역 실물경제의 급하강 국면에 이어 주요사업장이 직원들의 고용유지도 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 새 곤두박질치는 사업장 매출로 월급 줄 돈이 없어 휴업·휴직이 속출하고, 일자리 위기에 처한 종업원들이 별책 수 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비·판매가 급격하게 움츠러들면서 기업들의 고용·생산에 ‘적신호’가 켜지는 악순환 고리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제주경제 현실을 말해 줍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휴업)를 하는 사업장에 지원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18일 기준 412건, 4778명에 달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발생이전인 1월 21일까지 4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월 170건, 3월(18일까지) 216건으로 급증세입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관광지 제주지역 특성상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이유도 큼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국면으로 흐르면서 월급을 못주는 사업장들이 계속 속출한다면 제주경제 미래는 매우 암울해 집니다. 기업들의 고용유지는 힘들고, 문을 닫는 사업장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소비·판매에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장들이 최근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교육지책으로 쓰는 휴직·휴업 카드에 동원 가능한 모든 지원책이 빠른 시일내에 뒤따라야 합니다. 제주도가 폭증하는 고용지원금 업무처리를 위해 특별T/F팀까지 구성,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에 나선데 이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확대까지 계속 검토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입니다.

나와 이웃의 일자리 지키기는 제주경제를 살리는 주춧돌이라는 인식으로 난국 타개에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원순(향년 72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3월 23일

아들 강길승 며느리 김선미
 벼룩 강나영
 딸 강은주 사위 강경철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 발효기(곰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 펠렛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소방서 시청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당사에서 제조하는 **편백 피톤치드 추출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미국 FDA화장품 심사기준 합격 판정** 되었음

편백피톤치드 추출수는 인체에 무독성이며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곰팡이·황색포도상구균등에 탁월한 살균·살충·항균·항충 작용은 물론 악취제거·세집중후균·스트레스 완화 시켜줌

제주편백우드(영)
 T. 064-725-0622
 제주시 보배길 32-16(제주대학교병원 남쪽) 벤처기업·편백피톤치드 추출 전문기업